남의 탓을 하게 되면 그 탓한 것 만큼 진전이 빠르지 못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그 반면에, 나는 내가 안 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좀 어려운 집이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절 짓는 데 보태는 것만 불사가 아니거든.

굶어서 애쓰고, 자식들이 아파서 애쓰고, 부모가 아파서 자식들이 애쓰고, 소년소녀 가장들, 또 자식이 없는 부모들, 노인네들을 볼 때에 지금 남들이 다 해 줘요. 해 주는데 해서 받는 사람은 테레비에 이름난 사람들이나 받지, 창피하고 양심이 있고 어렵고 가장들이 애쓰고 힘들고 노인네가 숨겨져 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사람이 허다히 많거든. 그런 부분을 좀 봐서 함이 없이 도와줘라, 있으면. 없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또 마음으로 도와줘라.

넣어도 넣어도 줄지 않는 마음, 그 뭣다 뭘 하느냐 이거야, 응? 마음 한 접시씩 담아서 그냥 벌려라 이거야. 벌려도 벌려도 줄지 않는다 이거야. 그 마음 아꼈다가 뭐 하느냐 이거야. 마음을 아끼느라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가려 가지고 이쁜 사람만 주고 미운 사람을 안 준단 얘기야? 마음을 아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통달을 못 해!

질문자2(남) 스님, 감사합니다.

질문자3(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해 온 과정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앉으나 서나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껌을 하나 씹더라도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항상 관하고, 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항상 스스로 제 마음자리를 계속 지켜보면서 가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의식적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항상 스스로 지켜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한데, 그런데 또 제가 일을 할 때나 길을 걷거나 집에 앉았거나 항상 이것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큰스님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 도반들 생각을 한다든지 지원의 스님들 생각을 한다든지, 하여간 마음공부에 관해서만이 자동으로 항상 연결돼 돌아가는데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일에 전념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한다는 의식 없이 자동으로 그냥 연결되어 돌아가거든요.

큰스님 24시간을 일을 하는데요, 주인공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나서 주인공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게 24시간을 공간을 두고서 띄어졌나요? 그냥 무시(無時)거든, 무시. 그러니까 24시간 뒤에 생각난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24시간이 있지, 24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초월해서 그냥 그 시간에 생각났으면 그 시간에 난 거지 24시간이 왜 거기 붙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이 붙기 이전에 또 관하는 게 생각이 났든 안 났든 그대로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데 무슨 찾고 안 찾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있는 거다. 그러니 그대로 무조건 믿어라. 자기 이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종자이며 뿌리다, 불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대로 내가 생각이 났든 안 났든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있으니까 믿는 거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뿌리로 인해서 싹이 산다. 가장구와 잎새가 푸르르게 되는 것도 바로 내 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구나. 봄이 오면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하니 참 감사하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갈 거고, 과거에도 그렇게 이끌어 왔을 테고, 참 고맙구나. 이게 그냥 자연적이지 어떻게 없는 거를 끌어다가 찾으려고 하고 없는 거를 끌어다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는 데도 그 일에 몰두를 하는 것도 바로 주인공을 믿고 찾는 거예요, 그게. 일에 몰두를 했다 해서 주인공을 생각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그렇게 몰두하게 만들었으니까 주인공이 한 거지, 주인공의 시자일 뿐이지, 움죽거리게 했을 뿐이지, 뭐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이 다 하고, 움죽거리는 것이 거기서 움죽거리게 하니까 움죽거리는 거지, 만약에 그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빠진다면 자기는 송장이 되는데 뭐 움죽거릴 게 있어요, 네? 안 그래요? 자기 지금 눈뜨고 이렇게 눈 고갯짓하는 것도 자기 영원한 근본이 살아 있으니깐 그게 있는 거지, 그게 빠지면 송장이 돼서 그냥 눈 감고 있을걸요, 아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눈 하나 뜨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물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바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모두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이 몸을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형성시키기 위해서 지수화풍으로 된 정자 난자를 빌려서, 또 지수화풍에서 낳게 하고 지수화풍을 또 형성케 해서 이렇게 삶의 보람을 가지려고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생산을 했는데 주인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껍데기가 자기라고 외치면서 그냥 돌아치니깐 이 속의 주인공, 참자기는 어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어이가 없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번 움죽거리고 살아 볼 양으로 형성시켰는데 핀트가 다르게 자꾸 가니까, 어이가 없을 거예요.

질문자4(남) 큰스님, 견성을 한다는 게 혹시 이런 건 아닌지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에는 "해는 해마다 좋은 해요, 달은 달마다 좋은 달이요, 날은 날마다 좋은 날이니,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법 또한 그러하리다." 이렇게 나와 있기에, 이 나의 실상이라는 게 오직 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아니, 그렇든 저렇든, 그런 좋은 소리를 하든 안 하든, 집에 가서 배고프다고 "얘! 밥 가져오너라." 이런 소리를 하든 어떻게 됐든 거기서 나오는 소리거든, 그게. 그러니깐 자기를, 한번 가서 색경을 보고 말을 해 보라고요, 누가 하나. 그 모습은 누구며 그 모습 속에 말하는 자는 누군가. 그냥 모르든 알든 그냥 무조건 믿어 버리라니깐,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걸 믿어 버리라니깐.

질문자5(여)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많은 보살님 중에 제 자리에 어떤 보살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어떤 보살님이냐 하면, 제가 95년도 8월에 부산 한마음선원을 처음 갔었는데 그 법당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물으니까 잘 가르쳐 준 보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자리 중에 하필이면 그 보살이…, 제가 일어서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앉겠다' 했는데, 그 인연은 무슨 인연이며, 지금의 인연인지 전생의 인연인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처음에 가르쳐 준 인연은 참 기쁘기 한량없고 고맙기 한량없고 감사하기 한량없으니, 허허,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를 테스트해 보는 것도 되죠. 댁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기서 그냥 무마할 거를 저 사람 마음을 동하게 해서 이쪽에 와서 뺨을 옥동같이 부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사람이, 그쪽 사람이 때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지만 그쪽 사람이 때렸다고 생각할 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라는 게 참 묘하죠. 그러니깐 남의 탓을 하지 말라. 모두가 스승이다. 남의 탓을 하게 되면 꼭 자기가 그만큼, 탓한 것만큼 진전이 빠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스승이지,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따로 있는 사람만 스승이 아니라, 스승은 스승대로 있다 하더라도 죽 그냥 전부야. 길을 가다가 봐도 스승이요, 오다 봐도 스승이요, 스승 아닌 게 없어.

질문자6(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이렇게 앉게 해 주신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가는 건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꿈을 꾸는데 소를 봤습니다. 소를 보는데 초가집 밑에서 큰 황소가 기지개를 딱 펴더니 그 소가 그것도 고삐가 뚝뚝 끊어지면서 그냥 달아나가는데, 트랙터가 그 소를 막으려고 했더니 소가 뿔을 들이대면서 그 트랙터 속으로 쏙 들어가는데 몸을 홀랑 벗으면서 그냥 달아나가는 걸 갖다가 '이거는 내가 잡아야 된다.' 하고 쫓아가면서 양 고삐를 잡았는데, 잡는 동시에 한참 산으로 끌려가다가 그 소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면서 등을 떡 대더니 엎드려 주면서 거길 타라 그러면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독경하면서 그 산등을 올라갔더니 허허벌판이, 그냥 벌판이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스님 용하십니다. 거기까지 길 없는 길을 걸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여여하게 있는 줄 아셔야 할 테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에서 없으면서도 이렇게 여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는 것이 함이 없이 우리가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자취를 앞으로는 떼어 놓지 않았으니깐 없고 또 자꾸 떼어 놓으면 발자국이 없어지니깐 없고, 그 발자국 떼어 놓는 것도 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을 던져 봐라. 마음을 즉 '탁 튀워라' 하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옹졸해서 그 육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이라는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니 생시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그 소가 댁이에요, 댁. 소로 화해서 보이는 거죠. 자기 소가 벗어나는 걸 자기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벗어나는 거를, 그렇게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고삐를 탁 치고 이제는 매여 있던 이 육신, 통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음이 벗어나서 자유롭게 뛰다가 그것도 또다시 잡아야 하니까 화했습니다. 사람이 돼서 노인네로 익었습니다. 노인네로 보이는 건 익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익어 가니까 지금 익어 가는 도중에 또 여여하게 잡아서 타고, 그 사람이 타는 거는 '너의 몸과 내 이 늙은 아비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을 역대로 오면서 형성시켰으니까 당신의 조상이죠, 얼른 쉽게 말해서. 당신의 조상인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쫓아가서 그 소고삐를 쥐려고 했는데 탁 끊어진 것은 댁이 태어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탄 거는 둘이 아니라는 뜻이요, 그 소가 화해서 변한 거는 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요. 그래 둘이 아닌 도리를 또 알아야 이제 여여한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더 하십시오. 하여튼 장하십니다. 착해서…. 다 되셨습니까?

대중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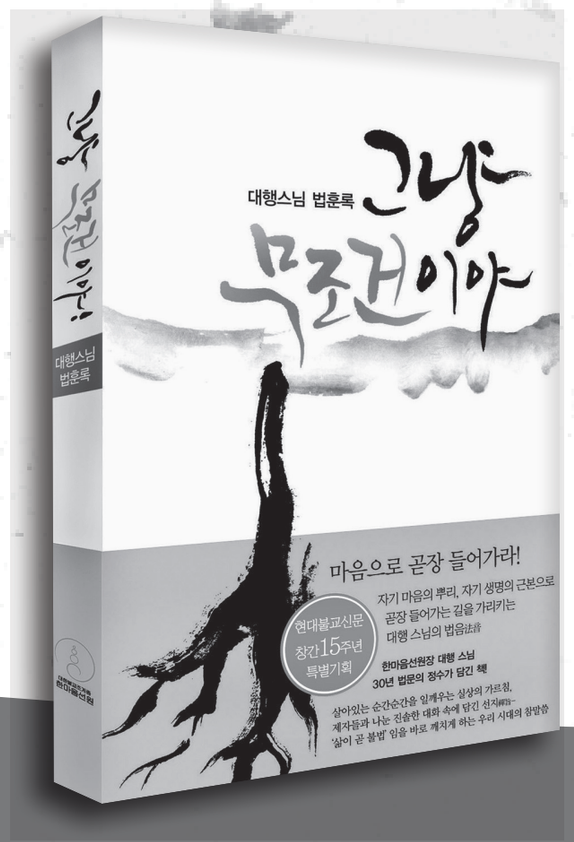
큰스님 그러니깐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 내가 추워서 걱정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말고, 허허, 법당이 있든 없든, 마당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생각하시고 그저, 내 마음은 자유다, 내 마음은 모두…. 마음이 자유죠? 그냥 벼락이 쳐 온대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점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뛸 줄 알아야 이것이 요량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실천을 해 보면 요량이 생기고, 뜻도 아주 막연한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광대한 뜻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애쓰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에도 저기 지금 나간 분도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우나, 마음이 곱고 착하고 할 양으로 애쓰니까 그렇게 벗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위 법문은 1997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넣어도 넣어도 줄지 않는 마음, 그 뭣다 뭐 하느냐.
마음 한 접시씩 담아서 그냥 벌려라 이거야.
가려서 이쁜 사람만 주고 미운 사람 안 준다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통달을 못 해!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